

요약 및 정책건의

1 연구의 개요

1.1 연구의 배경 및 목적

- 글로벌 금융위기 지속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증가, 중동 정세 변화 등에 의한 유가 불안,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급변하는 경제여건 속에서 도시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의 바탕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.
-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급변하는 사회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 및 지역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.
- 서울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경기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서울연구원(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)은 2008년 3/4분기부터 소비자체감경기지수(CSI : Consumer Sentiment Index or Consumer Survey Index)를 분기 주기로 산출하여 공표하고 있음.
- 소비자체감경기지수는 대표적인 종합경기지표로서 경기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다른 통계(산업생산, 경제성장률 등)에 비해 속보성이 우수하고, 서울지역의 체감 경기 및 전망을 진단하기에 유용한 지표임.

2 소비자체감경기조사 방법

2.1 표본 설계

- 소비자체감경기조사를 위한 조사모집단은 2010년 인구센서스를 기준으로 가구주 연령이 만 20세부터 69세까지의 서울시 일반가구로 한정

- 하였으며 미혼가구는 제외함.
- 목표 표본은 서울 소재 1,000가구이며 가구주 연령별 가구 분포는 연령별 구별 비례에 맞게 표본비율을 할당함.
- 부가적으로 권역별 결과 산출을 위해 5대 권역별로 나누어 가구 표본을 할당함.
- 권역별 해당 자치구는 서울연구원에서 산출하고 있는 「서울서베이」 등 기존 조사와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권역 구분을 따름.
- 응답대상자는 가구주 및 가구주 부인으로 한정함.

표 1 5개 권역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 분포

(단위 : 가구)

	20대	30대	40대	50대	60대	계
서울 전체	25	223	324	260	168	1,000
도심권	1	11	15	12	11	50
서북권	3	26	35	29	23	116
서남권	9	71	97	79	49	305
동남권	4	41	70	55	27	197
동북권	8	74	107	85	58	332

2.2 지수산출 방법 및 분석단위

- 소비자 체감경기지수는 가구부문을 항목별로 5점 서열척도로 배분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후 전체응답빈도수로 나누어 산출함.
- 소비자체감경기지수(CSI)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.

$$CSI = ('매우 나쁨' \text{ 응답빈도} \times 0 + '다소 나쁨' \text{ 응답빈도} \times 50 + '동일' \text{ 응답빈도} \times 100 + '다소 좋음' \text{ 응답빈도} \times 150 + '매우 좋음' \text{ 응답빈도} \times 200) / \text{전체응답빈도수}$$

- CSI의 범위는 $0 \leq CSI \leq 200$ 이며 CSI가 100 이상이면 소비자체감경기가 전 분기보다 호전, 100미만이면 전 분기보다 악화, 100이면 전 분

기와 보험수준을 의미함.

- 1,000가구 표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권역별, 가구주 연령별, 소득별로 분류함.
- 각 분석 단위는 5개 권역별, 가구주 연령별, 소득 수준별, 학력별, 응답자 성별, 가구주 직업별임.

2.3 설문 내용

- 기본조사는 서울지역의 분기마다 조사할 기본적인 소비자경기전망과 관련된 지수를 다음 그림과 같이 산출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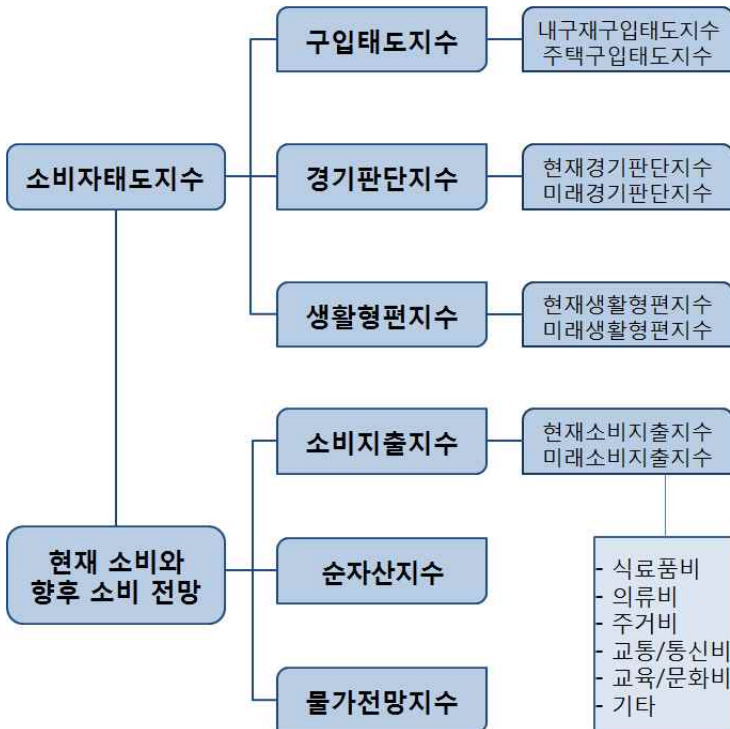


그림 1 서울지역 소비자체감경기지수 체계

3.1 2013년 4/4분기 결과 요약

- 서울시민의 체감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부정적
-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2013년 4/4분기에 91.7로 전 분기 대비 4.0p 상승
- 2013년 4/4분기 「현재생활형편지수」는 89.4, 「현재경기판단지수」는 71.5로 전 분기 대비 각각 3.7p, 9.4p 증가하였으나 기준치(100) 이하
- 저물가 기조의 지속, 취·등록세 하락 등의 영향으로 「주택구입태도지수」는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나 「현재소비지출지수」(92.3) 및 「미래소비지출지수」(99.4) 모두 기준치(100)를 밑돌고 있어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
- 2014년 서울경제는 3.0%의 성장이 전망
- 2014년 서울경제는 선진국의 경기회복 흐름에 영향을 받아 점차 회복하여 전년도 대비 0.8%p 상승한 3.0% 성장이 예상
- 서울의 소비지출은 가계대출 부담 및 정부의 재정 악화 등의 위협요인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의 증가, 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여건의 개선으로 전년도 대비 1.0%p가 상승한 2.7% 증가 전망
- 서울의 물가는 공과금 인상, 소득여건 개선 등의 물가상승 압력 요인으로 전년도 대비 0.6%p 상승한 2.6%의 상승이 예상
- 취업자 수의 증가 등 고용여건의 개선으로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어 실업률은 전년도 대비 0.4%p 하락한 3.5%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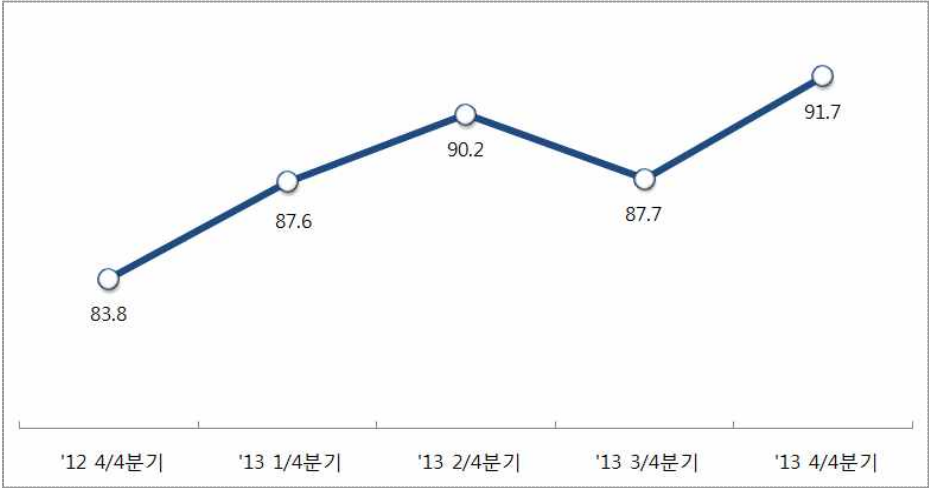


그림 2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

표 2 서울지역 소비자태도지수

	소비자 태도	생활형편		경기판단		구입태도	
		현재 생활형편	미래 생활형편	현재 경기판단	미래 경기판단	내구재 구입태도	주택 구입태도
2012년 4/4분기	83.8	99.3	98.0	48.3	88.2	97.7	99.8
2013년 1/4분기	87.6	86.1	105.5	53.4	100.4	92.5	99.7
2013년 2/4분기	90.2	87.8	104.5	64.8	99.7	94.4	106.3
2013년 3/4분기	87.7	85.7	102.3	62.1	94.1	94.4	96.9
2013년 4/4분기	91.7	89.4	101.8	71.5	96.8	99.1	104.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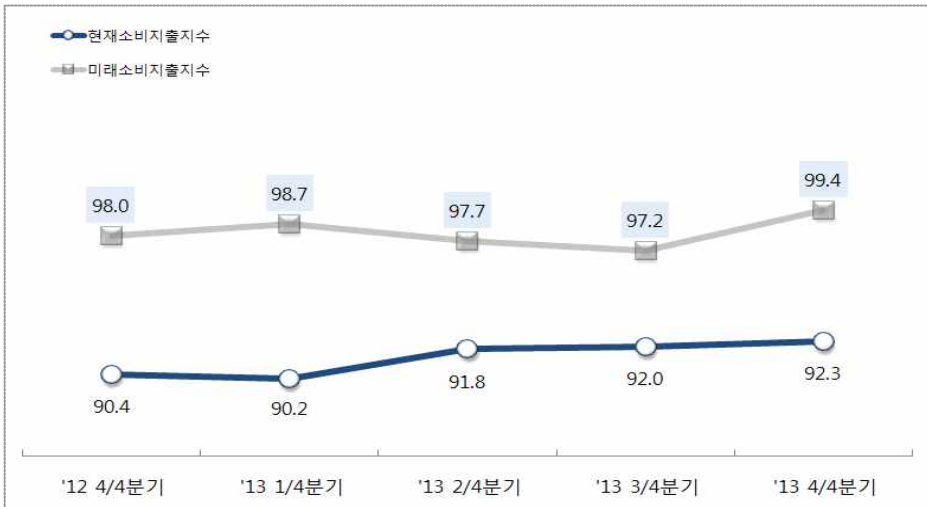


그림 3 서울의 소비지출지수

표 3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지수

	소비지출		순자산	고용상황	물가예상
	현재 소비지출	미래 소비지출			
2012년 4/4분기	90.4	98.0	94.6	84.7	145.7
2013년 1/4분기	90.2	98.7	97.0	95.7	147.1
2013년 2/4분기	91.8	97.7	95.9	95.5	145.2
2013년 3/4분기	92.0	97.2	95.1	91.8	143.2
2013년 4/4분기	92.3	99.4	97.3	91.2	138.2